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전기 1.7배. 도시가스 3배. 등유 6배. 199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전기 요금은 1.7배 밖에 오르지 않았다. 값싼 전기 요금의 1등 공신은 원자력발전이다. 정부는 1978년 고리1호를 시작으로 매년 1기꼴로 원전을 지으며 전력을 값싸게 공급하고 있다. 게다가 원전은 출력량을 수요에 따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심야에 남는 전기는 산업용으로 싸게 팔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는 이렇게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에너지 소비 구조로는 에너지고갈과 기후변화라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에너지 소비 구조의 변화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많은 편이다. 이에 반해 온실가스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다.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들은 2050년까지 1990년 방출치의 50~80%까지 줄여야 한다는 장기 계획 속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량을 더 늘려 2030년에는 지금보다 50%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2024년이 되면 현재 21기에서 34기로 늘어나게 되는 원전이 바로 그 주범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일명 '녹색 성장'의 대안으로 원자력을 택했다.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오히려 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을 늘린다고 하지만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늘어나다 보면 석탄과 석유의 사용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은커녕 오히려 온실가스 방출량은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말로는 녹색 성장을 외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원자력, 더 많은 온실가스'라는 본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위기 시대는 일찌감치 예견되었다. 현재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인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는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다. 물론 우라늄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소비는 늘어나는데 공급량이 정체되면 가격은 올라가 수밖에 없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자원고갈과 에너지위기 시대에 97%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저렴한 에너지 가격과 높은 에너지 소비를 자랑한다. 정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라면서 그 방향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계획을 고수하다가는 에너지 가격폭등과 핵폐기물, 핵발전소 사고 그리고 온난화에 의한 습격에 당할 수 있다. 원자력 전력 비중이 70%대인 프랑스는 2006년 이후 중유발전소 4기를 재가동했다고 한다. 터무니없이 늘어난 전력수요를 원전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다. 원전 증설이 에너지 과소비를 부르고, 이것이 다시 화석연료 사용을 불러온 셈이다. '핵 의존이냐, 핵 탈피냐'를 논하기 전에 먼저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얼마만큼 감축할 것이냐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에너지 기본 계획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방송기술저널은 개편을 맞아 문화면을 신설하고, 다양한 회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싣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감상한 책이나 영화, 잊을 수 없는 맛을 지닌 먹거리,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멋있는 여행지 등을 독자 여러분이 직접 소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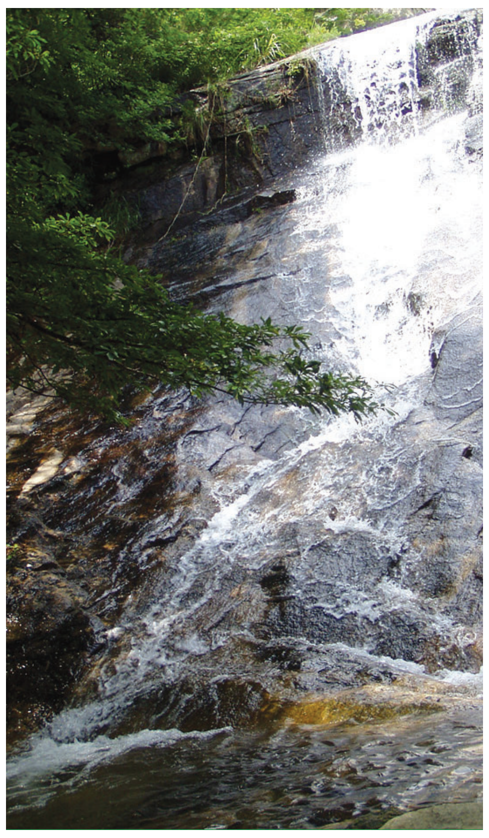
journal@kobeta.com으로 여러분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방송기술저널 지면에 실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경새재를 걷다

걷기가 새삼스러운 유행으로 떠오르면서 제주도 올레길, 북한산 둘레길처럼 이름없던 길들이 갑작스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유행이란 달리 말하면 '쏠림'이기도 해서 몇몇 이름난 길들은 유난히 사람들이 붐비는 반면에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어떤 길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여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오다니던 길이 있다. 경상도의 선비들이 한양에 과거시험을 보러 갈 적에 꼭 넘어야만 했던 길, 한강과 낙동강을 이어주는 가장 높고 험한 고개. 바로 경상북도 문경과 충청북도 충주를 잇는 문경새재[聞慶−]다.

문경새재는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 "풀(억새)이 우거진 고개" 혹은 하늘재(麻骨嶺)와 이우리재(伊火峴) 사이에 있다고 해서 "새(사이)재", 새로(新) 생긴 고개라서 "새(新)재"라는 등 그 유래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저없이 추풍령을 가장 큰 고개로 꼽는 요즘과는 달리 조선시대만 해도 백두대간을 넘는 최고의 고개는 죽령(좌로), 추풍령(우로)와 더불어 문경새재(중로)가 꼽힐 정도였다.



문경새재를 잇는 제1관문부터 제3관문까지는 6.5km의 무척 완만한 경사길로 펼쳐져 있어서 3시간 남짓이면 걸어서 넘을 수 있을 정도다. 제주도 올레길을 걷는데 보통 4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 멀지 않은 거리.

제1관문인 주흘관 앞에는 박물관과 장승공원이 있는데, 저마다 다른 소망을 품은 다양한 표정의 장승들이 도심의 공원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주흘관을 지나 1km 남짓을 걸어가면 드라마 '태조 왕건' 등을 찍은 KBS드라마 오픈 세트장이 있으니 시간이 넉넉하다면 잠시 구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1관문을 어느 정도 벗어나면 넓게 정돈된 황토길 주변의 수풀 사이로 좁고 굽은 오솔길이 보이기도 하는데, 바로 이 길이 옛 과거길을 길이 정돈되기 이전의 상태로 보존해놓은 것이다. 옛 과거길은 비단 길만 보존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와 문구들을 군데군데 마련해 놓고 길을 걷는 이들에게 따분한 글공부와 여행길에 지친 선비들의 재치를 엿볼 수 있도록 해두었다. 옛 선비들의 글에 취해 길을 오르다가 주막이 보이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다 (아쉽지만 실제로 영업하지는 않는다).

어느샌가 길옆으로 조그만 물길이 나있다. 그 물길을 따라 제2관문인 조곡관에 다다를 즈음이면 용추폭포와 조곡폭포가 시원하게 우리를 반긴다. 처음보다는 조금 가파른 길을 따라 제2관문까지 올라오며 생긴 갈증을 조곡약수로 가시고, 다시 길을 걷자. 제2관문에서 500m 쯤 지나면 문경새재 아리랑비가 있다. 커다란 돌에 새겨진 아리랑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면 그 옆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된다.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로 각각 녹음된 아리랑을 언제든 들을 수 있다. 또, 제3관문을 향해 한참을 걷는 도중에 책바위를 발견하게 되면 가까이 다가가서 돌로 정성스레 괴어놓은 종이들을 하나하나 가만히 살펴보시길 권한다. 그 옛날 선비들이 과거를 가는 도중 쉬어 가면서 장원급제의 소원을 빌었다는 그 돌무덤에는 이제 고시같은 큰 시험을 준비하는 요즘 사람들의 바람들이 빼곡이 들어차있다. 과거의 전통에 현재의 바람이 절묘하게 투영된 모습으로.

과거시험을 떠나던 조선시대 영남의 선비들은 죽을 쑬까 봐 죽령을 피했고, 추풍낙엽 떨어질까 봐 추풍령을 피했고, 오직 '경사만을 듣기 위해(聞慶)' 이곳 새재를 지나갔다고 한다. 그들의 과거급제를 향한 바람이 오죽했으면 문경새재의 곳곳에 책 바위, 소원성취탑, 장원급제길 같은 이름이 있을까 싶다.

문경새재 과거길은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에도 선정됐을 만큼 꼭 한번 걸어볼만한 길이다. 봄이 오고, 나무마다 새싹이 한참 돋아나는 지금 문경새재를 걸어보는 것도 즐거운 일일 것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홈페이지 개편!!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club.kobeta.com
- 방송과기술 magazine.kobeta.com
- 방송기술저널 journal.kobeta.com
- 모바일 방송기술저널 m.kobeta.com

www.kobeta.com